

【 종교·복지 】

사회연대은행 지원받아 '반찬전문점' 운영 김 선 덕씨

“좌절 이겨 낼 힘이 생겼어요”

무보증으로 창업자금 대출... 부도의 아픔 털어



김선덕(오른쪽)씨가 지난 2일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반찬 전문점'에서 음식을 정리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부영1차 아파트 상가 내 반찬전문점 '반찬'을 운영하고 있는 김선덕(57·광주 북구 유봉)씨가 반찬을 만든다. 마침 저녁시간이어서 반찬을 사러 온 손님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의 표정에선 전혀 피곤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얼굴 가득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김씨는 하루하루 벌이를 걱정해야 했던 신세였다. 5년 전 양주시에서 인근에서 지인과 함께 반찬전문점을 열었지만 얼마 못 가 문을 닫아야 했다.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팔아본 적은 있었지만 가게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것이다. 부자했던 돈도 모두 날렸다. 이후 다시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아는 사람들에게 팔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다행히 가족이러곤 스무 살 넘은 딸 하나 뿐이라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었지만 자신의 생계는 책임져야 했기에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김씨는 지난해 초 다니던 교회의 권사가 사회연대은행이란 곳을 알려준다고, 이 곳에서 무담보로 창업자금을 빌려준다는 '솔깃한' 소식을 들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회연대은행을 두드린 결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며 "반찬가게를 열어볼 생각으로 은행을 기웃거리기도 했지만 '담보'나 '보증인' 얘기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은 2천만원. '연리 2%'에 6개월 가위, 42개월 분할 상환'이라는 과격적인 조건이다.

김씨는 가지고 있던 돈을 보며 지난해 7월 신창지구에 10평 규모의 반찬전문점을 열었다. 10년 넘은 노하우를 발휘해 정성껏 만든 반찬들은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이 퍼졌다. 요즘엔 월매출 1천만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매일 배달하는 도시락 고정 고객도 50명이나 된다. 지금처럼 장사가 유지된다면 거취기간인 6개월이 끝나는 2월말부터 월 50여만원씩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김씨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진작 몰랐는지 후회가 들 정도"라며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성실한 면을 보여주면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신청에서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3~4개월. 이미 통과한 김씨의 말과 달리 심사는 꽤 까다롭게 진행된다.

사회연대은행의 '무보증 소액창업지원사업'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유리하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 일반 은행에 접근 자체가 어려운 점, 소액 대출에는 은행 역시 소극적이라는 점 등에 착안한 것이다.

김씨는 "장사가 더 잘 되면 마침 옆에 비어 있는 가게까지 임대해 사업을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사업도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창업한 곳은 광주 10곳, 전남 7곳 등이며 전국에 396곳이 있다. 문의 02-2274-9637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종교칼럼



최도웅

금도끼 은도끼

어린시절 읽었던 동화 중 마음에 오래도록 남은 이야기가 '금도끼 은도끼'다. 선량한 나뭇꾼은 어느때처럼 나무를 한다. 그날도 연못가 근처에서 "딱 딱"하는 도끼소리에 아름다운 나무는 땅으로 내려왔다. 그러던 중 도끼날이 그만 연못에 "퐁퐁"하고 빠졌다. 실의에 찬 나뭇꾼은 연못가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이 정성에 감동한 것인지 연못속에서 신령이 나타나 "무슨 일로 울고 있느냐?"고 묻자 나뭇꾼이 답한다. "제 유일한 도끼를 그만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연못으로 내려간 신령은 금도끼를 보이며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고 묻자 나뭇꾼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붙이 도끼입니다"고 말한다. 다시 연못으로 내려갔다가 나타난 신령은 이번에는 은도끼를 나뭇꾼에게 보이며 "이 은도끼가 네 것이냐"고 묻는다. 역시 나뭇꾼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붙이 도끼입니다"라고 답한다. 그러자 신령은 다시 연못으로 내려갔다가 나뭇꾼 앞에 나타나 쇠붙이 도끼를 보이며 "이 쇠도끼가 네 것이냐"고 했다. 나뭇꾼이 울던 울음을 그치고, "예, 그 쇠붙이 도끼가 제 것이입니다. 저의 유일한도끼도 소중한 것입니다"고 하자 신령은 "알겠다. 네 쇠도끼를 주마. 거기에 금도끼와 은도끼도 함께 가져가라"고 하며 사라졌다. 600년만에 오는 황금돼지해라고 하는 정해년은 이제 그 바퀴를 굴러가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가슴에 일렁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동화 속의 나뭇꾼이 금도끼와 은도끼에도 욕심내지 않고, 소중하게 아끼고 간직하던 쇠붙이 도끼를 자신의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 그 용기를 무엇보다 간직하고 싶다.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질 휘황찬란한 '부'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타나 쇠붙이 도끼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한 그 자신만만함을 키워주고 싶다. 성인군자께서는 인간의 시비를 가릴 때에 오로지 공(公)을 표준한다고 한다. 지금 바로 앞의 이로운보다는 대중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유익주는 일을 통해 옳고 그름(시비)을 판단한다 하니 참으로 반갑고 다행이고 싶은 마음이다. 황금돼지해에 성인군자께서 공(公)을 표준하여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나뭇꾼의 당당하고 자신만만함을 듬뿍 키워가련다. (원불교 광주-전남 사무국 교무)

내일 '호남지역 예배사역자 컨퍼런스'

'호남지역 예배사역자 컨퍼런스'가 오는 13~15일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 예은교회는 호남지역에 찬양과 경배사역을 보급하기 위해 '땅끝까지 흘러넘치는 예배'를 주제로 2박3일동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예은교회 이병우 목사의 주제 강의를 비롯해 신사사역자 박재은(백석에수대학 교수), 드림 임준형, 심어 정승은, 배시수 기타 박기환, 기타 김주현, 사운즈 엔지니어링 황권익 등 전문가들의 포지션 강의가 이어진다. 예배 사역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물은 성경과 찬송, 개인 악기 등이다. 참가료는 11만원(숙박 기준). 문의 010-9211-4300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20% 할인

사회복지시설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국·공립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들은 매일 전기요금의 20%를 할인받게 된다. 할인 혜택을 원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증서 등 근거서류를 구비해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국번없이 123

영화안내 m-o-v-i-e-s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Megabox Day 매주 목 금 영화 4,000원 관람

엔터시네마 1관 허브 (12세) 2관 언니가 간다 (12세) / 오리엔트 평원 (12세)

콜롬버스시네마 하남점 상무점 하남점 (무역권) 상무점 (상무점과 이마트 사이)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주)옥션코리아 법원경매 222-8446 (법원경매입찰망)

대인부동산컨설팅 011-625-0510 (쌍문동 한국병원 옆)

금보부동산컨설팅 (02)261-8949, 011-602-2233

인애공인중개사 011-642-0391 (삼우지구)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062)973-9174, 016-757-8800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법원경매 (주)옥션코리아 222-8446